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 6. 10.(월) 10:00

5 분 자 유 발 언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전국적 대회로 키웁시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강 진 희 의 원)

-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전국적 대회로 키웁시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의 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적 대회로 과감히 키우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한 운동모임인 ‘러닝크루’가
확산되면서 달리기 인구가 최대 1천만명까지
늘었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인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던 마라톤은
코로나19 이후 관련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유명인들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관심도가 더욱 올라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300여 개 마라톤대회로
많은 동호인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톤대회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열린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1만 3,102명이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합천군 인구에 32%에 달하는 규모로 대회 전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덕에 주요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대회기간 숙박업, 유통업, 외식업 등의 카드 이용금액이 꺾충 뛰었다고 합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숙박업과 유통업은 각각 전주 대비 29%, 27% 증가했고 외식업은 4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경주시도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32개국 1만 2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여하여 경제적 효과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특색있는 마라톤대회 개최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이미 특색있는 마라톤대회가 올해로 1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주최, 울산광역시 북구육상연맹 주관으로, 북구청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가 그것입니다.

올해 대회도 지난 5월 19일 개최되어 700명의 참가자가 강동산하 몽돌해변을 배경으로 4km를 달렸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마라톤대회 중 해변가를 달리는 마라톤은 있어도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몽돌 위를 직접 달리는 대회는 몽돌마라톤대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저렴한 참가비에 기념티셔츠와 완주 메달, 풍족한 먹거리, 경품 추첨 및 공연 이벤트 등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상당수의 참가자가 부산, 경주,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왔고 심지어 대형버스까지
대절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몽돌마라톤대회는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먹거리도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2007년 첫 개최 이후 해를 더해갈수록
대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참가인원이나 예산 지원 등 규모 면에서 울산 내
다른 마라톤대회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울산 내 마라톤대회의 참가인원과
지자체의 지원예산을 살펴보니
제21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는 5,000명 출전에 3억 원,
제22회 울산커플마라톤대회에는 2,000명 출전에
9,0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몽돌마라톤대회와 마찬가지로 구비가 투입되는 대회 중
오는 9월 개최될 제3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몽돌마라톤대회는 이들 대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살림살이로 인해 참가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회 운영 면에서도 회덮밥, 두부김치, 아이스커피 등
먹거리를 손수 준비하며 북구육상연맹 회원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행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스포츠 이벤트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성장동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그대로 녹아있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증액을 통하여 전국의 더 많은 마라톤 동호인이
몽돌해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북구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